

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(6월24일)

(후렴) 유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 하나 이 다

<p>1. 주님, 당신은 저를 살피보시고 잘 아시나이다</p> <p>2. 당신은 제오장육부를 만드시고</p> <p>3.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</p>	<p>앞으 나 서 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, 멀리 서 도 제 생각 알아 차 리 시 나 이 다</p> <p>어미 배 속 에 서 저 를 엮 으 셧 나 이 다</p> <p>제 가 남 몰 래 만 들 어 질 때,</p>

<p>길을 가 도 누 워 있 어 도 헤 아 리 시 니</p> <p>묘 하 게 도 지 어 주 신 이 몸, 당 신 을 찬 송 하 나 이 다</p> <p>땅 속 깊 은 곳 에 서 짜 일 때</p>	<p>당 신 은 저 의 길 모 두 아 시 나 이 다</p> <p>당 신 작 품 들 은 놀 랍 기 만 하 습 니 다</p> <p>제 뻘 대 속 속 들 이 당 신 은 아 시 나 이 다</p>